

‘다시’와 ‘또’

윤재학*†

경희대학교

Jae-Hak Yoon. 2007. *Tasi vs. Tto*. *Language and Information* 11.2, 1–22. This paper examines *tasi* and *tto*, two Korean adverbs with roughly the same semantic value of *again*. It presents two empirical generalizations: (i) semantically *tasi* can mark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e, modifying an eventuality that is token-identical to a contextually-given eventuality, whereas *tto* is only limited to mark a simple repetition, thus modifying a type-identical event; (ii) functionally *tasi* can modify result states, but *tto* cannot. Then, it illustrates how the functional difference of result state modification can be accounted for by the notion of default event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다시 / 또 (again), 기저사건 (default event), 결과상태 (result state), 결과상태수식 (restitutive reading), 반복적 의미 (repetitive reading)

1. 머리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의미, 기능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의 어휘의미적 특성을 고찰하여,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주장을 펴고자 한다. 이들의 차이점을 현상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경험적 일반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우선, ‘다시’와 ‘또’의 의미적 차이로서 원상회복적 의미와 단순반복적 의미로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기능적 차이로서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있으나, ‘또’는 결과상태 수식이 불가능함을 포착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 차이 중에서 의미적 차이는 이들이 주어진 특정 사건에 대해 각각 개체동일적 (token-identical) 사건과 유형동일적 (type-identical) 사건에 대한 수식을 제공하는 어휘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가능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해 본다. 먼저, 관찰된 현상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descriptive adequacy) 포착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접근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Pustejovsky (1995)의 생성 어휘론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려면, 현재의 사건구조 이론에 다

* 경희대학교,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이메일: jyoona@khu.ac.kr

† 이 연구는 2004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040073)

소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중점하위사건구조 (headed subevent structure) 의 방식을 수정하여, 달성동사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결과상태가 중점(head) 이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process) 을 중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접근방법으로 ‘다시’와 ‘또’에 관련된 부사어 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하위구조에 대한 Pustejovsky 의 이론의 수정을 통한 설명보다는 부사와 피수식 술어의 호환성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술어에 무대성(stage-level) 과 개체성(individual-level) 구분에 기반하여 Pustejovsky 가 제안한 기저사건(default event) 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다시’와 ‘또’의 차이점

이 두 부사는 아래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의미적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감 상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나, 진리조건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 화자들의 일반적 판단이다. 이들은 사건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해당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미 존재했다는 전제를 요구한다.

(1) 가. 내일 다시 만남시다.

나. 내일 또 만남시다.

(2) 가. 길수는 다시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나. 길수는 또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많은 경우에 두 부사의 사용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래 (3)의 경우처럼 ‘또’와 ‘다시’가 동시에 나타나서 강조적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3)은 위의 (2)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3) 길수는 또 다시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의미적 차이를 보여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이 관찰된다. 아래 문장 (4)와 (5)를 주목하자:

(4) 가. 연구계획서 다시 복사해 오세요.

나. 연구계획서 또 복사해 오세요.

(5) 가. 이 기안서 다시 써와.

나. 이 기안서 또 써와.

문장 (4가), (5가)에서는 ‘다시’가 수정적(修整的)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새로운 복사작업과 기안서 작성의 행위가 기존의 복사물과 기안서를 대체하게 된다. 반면, 문장 (4나), (5나)에 나타나는 ‘또’는 위와 같은 수정적 의미는 불가능하고, 추가적인/반복적인 의미에 국한된다. 예컨대, 지원서류에 연구계획서 2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주의로 한 부만 제출했을 경우 (4나)가 적절한 문장이다. 이에 반해, (4가)는 이미 복사한 연구계획서의 복사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적절한 발화이다.

마찬가지로 내무검사에서 바닥청소 상태가 불만스러운 경우에 (6나)보다는 (6가)의 문장이 적절하다.

(6) [내무반 바닥이 뭐야. 청소를 하기는 한 거야?]

가. 다시 닦아 임마!

나. 또 닦아 임마!

따라서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점이 다음 문장 (7), (8)에서 나타나는 대조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표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시’는 ‘배고프다’, ‘밥을 먹다’와 같이 서술어의 화용적 성격상 수정적 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순수한 추가적인/반복적인 의미를 가지는 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7) 가. # 너 다시 배고파?

나. 너 또 배고파?

(8) 가. # 밥 다시 먹을래?

나. 밥 또 먹을래?

얼핏 위와 유사한 아래 문장 (9)는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9가)는 단순한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9가)는 한 차례의 견배에 대한 (예를 들어, 잔을 부딪히는 타이밍 등에 대한) 불만스러움의 표출로서 이번에는 ‘제대로/똑바로’ 한 잔 하자는 수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9나)는 단순히 추가적인 의미를 지닌다.

(9) 가. 자, 다시 한잔 하자.

나. 자, 또 한잔 하자.

술은 한 자리에서 여러 잔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전 순배에 대한 수정적 순배가 가능한 점이 위의 (8가)의 ‘밥을 먹다’와 대조된다: 식사 한 끼를 불만스럽게 했다고 수정적으로 다시 먹는 행위는 화용적으로 부자연스럽다. 서술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복사상태가 불량한 연구계획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복사로서 대체하면 수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밥을 먹는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새로운 식사행위가 이전의 불만스러운 식사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밥이 식사의 의미가 아니고, 특칭적(specific)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먹는 행위로서 (8가)는 가능하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반복을 나타내는 (8나)는 부적절하다.

분명히 위의 (1), (2)에서는 ‘다시’와 ‘또’가 의미차이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미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일단은 명령형, 청유형이 사용되는 맥락,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속된 상태에 ‘다시’가 수정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부정적 함축을 지닌 행위를 자주 반복함에 대한 짜증으로 사용될 경우 아래와 같이 ‘다시’보다는 ‘또’가 적절히 쓰인다.

(10) 가. #왜 다시?

나. 왜 또?

다. #다시 술 먹었어?

라. 또 술 먹었어?

이와 같은 의미적 차이는 사건 의미론의 맥락에서 어떤 이론적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다시’가 수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또’에 비해 ‘다시’의 해석을 위해 맥락에서 제공되는 두 사건 간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단순반복적인 ‘또’의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다시’의 경우 동일사건의 연장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시’가 쓰이는 (8)과 같은 문장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같은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이 둘의 구분은 영어 구문 ‘the same X that ...’과 ‘the same X as ...’가 보여주는 개체동일성(token-identity)과 유형동일성(type-identity)의 대조와 유사한 예로서 파악할 수 있다.

부사 ‘다시’와 ‘또’의 두 번째 차이점으로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의 가능여부로서 기능적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불가능하다. 아래 문장 (11)은 이를 예시하고 있다.

(11) 가. 린다김은 다시 뉴욕에 갔다.

나. 린다김은 또 뉴욕에 갔다.

위 문장 (11나)는 단순한 한 가지 의미 밖에 없다: 린다김이 전에 적어도 한 번 뉴욕에 간 적이 있었고, 상황에 의해 주어진 특정 시점에 뉴욕에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반면, (11가)는 중의적이다. 물론 (11나)의 의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적 의미도 가능하다. 즉, 린다김이 평생동안 뉴욕에서만 살다가, 최근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경우에 적합한 의미가 (11가) 문장에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 (11나)는 진리조건적으로 거짓이지만, (11가)는 참이다. 이 경우, 반복되는 것은 돌아가는 동작이 아니라, 돌아가는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뉴욕에 있게 되는 ‘결과상태’를 지칭한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상대되는 영어 문장으로는 아래 (12)을 들 수 있다.¹

(12) 가. Linda Kim went back to New York.

나. Linda Kim went to New York one more time.

이런 차이는 화용적으로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는 아래 문장 (13), (14)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치찌개를 데우다’라는 술어는 이전 상태인 뜨거운 상태로 의 복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13가)의 경우 이전에 해당 김치찌개를 데운 적이 없고, 처음으로 요리하여 끓인 김치찌개가 식어서 가열을 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이다. 반면에 (13나)의 경우에는 이전에 데운 적이 있는 상황에만 해당한다.

(13) 가. 김치찌개를 다시 데웠다.

나. 김치찌개를 또 데웠다.

(14) 가. 송아지를 낳은 후 암소는 다시 태반을 먹었다.

나. 송아지를 낳은 후 암소는 또 태반을 먹었다.

마찬가지로 (14)의 맥락도 원상회복적 의미를 가능하게 한다. 필자가 어려서 목격한 충격적 장면으로서, 암소가 출산을 하고나서 송아지를 감싸고 있던 태반을 먹는 것을 보았다. 이 경우에 해당 암소는 송아지를 첫 출산하고, 태반을 먹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14가)의 문장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복되는 것은 태반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태반을 먹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결과상태, 즉, 태반이 원래 있던 암소의 뱃속으로 돌아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분명한 것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매우 대략적이라는 점이다. 언어사용자들의 인식에 원상회복적이라고 인정할 만하면 가능한 것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궁에

¹ 물론 (11가)와 (12가)가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1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12나)에 해당하고, 남은 하나가 (12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입장을 달리하여, (11가)는 (12가)와 대응되며, 이는 (12나)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2나)는 (12가)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있던 태반이 위 내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원상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다르게 (14나)와 같이 ‘또’의 경우에는 결과상태를 수식하지 못하고, 단순 반복적인 의미만을 제공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와 ‘또’의 이런 기능적 차이가 단순히 후자는 상태 수식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인 제한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문장 (15)에 의해서 예증된다. 이 문장이 보여주는 바는 부사 ‘또’는 상태수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단지 위에서 보여준 바 대로 결과상태 수식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5) 가. 너 또 아프니?

나. 그 사람 또 술집에 있어?

다. 그는 또 집에 있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결과상태가 일반적 상태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론적인 구조에 감안을 해야 하겠다. 결과상태 수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절에서 계속된다.

본 절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찰로 요약된다. 첫째로, ‘다시’는 단순반복적 의미와 수정적 의미를 가지나, ‘또’는 단순 반복적 의미에 국한한다. 둘째,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있지만, ‘또’는 이를 수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찰된 특성은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다시’가 원상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 연결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과상태 수식 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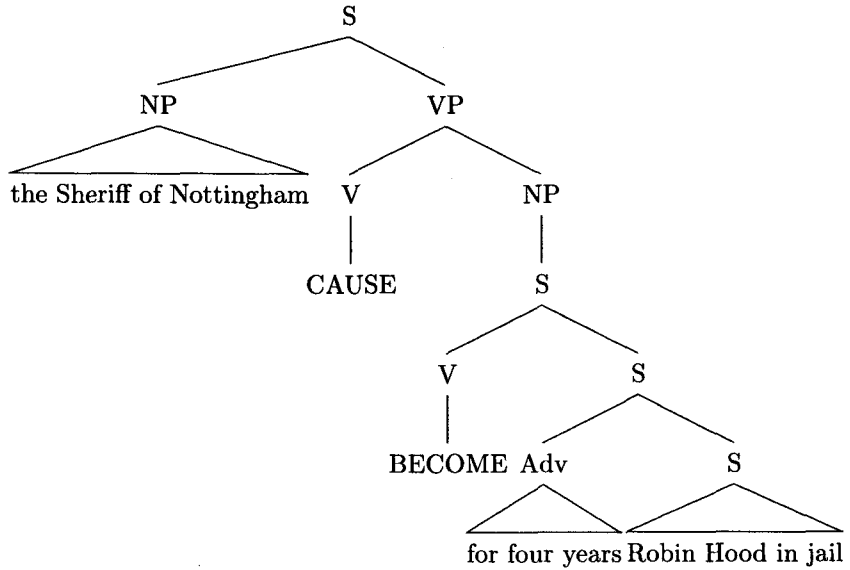
3.1 결과상태 수식

본 절과 다음 절에서는 앞 절에서 포착된 ‘다시’와 ‘또’의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모색하기로 한다.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다시’ 유형의 부사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Robert Binnick의 예문으로 알려진 (16)을 보자 (Morgan,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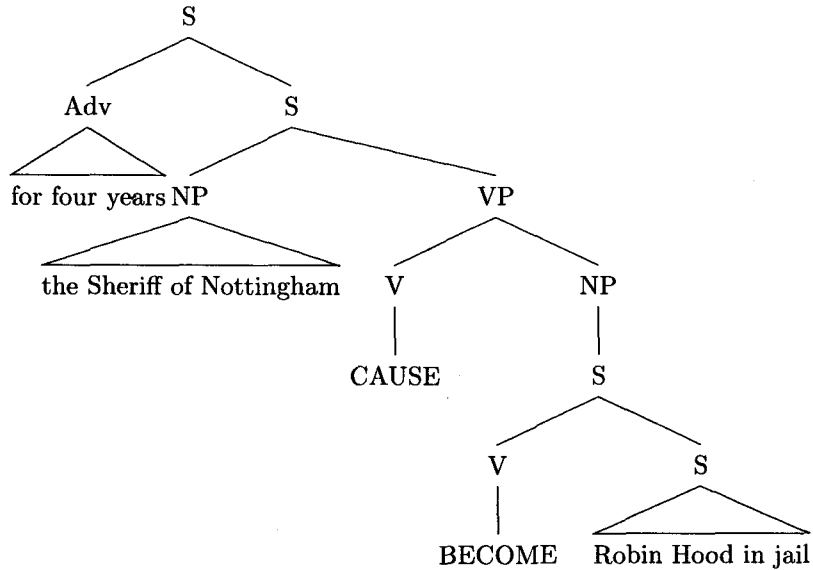
(16) The Sheriff of Nottingham jailed Robin Hood for four years.

이 문장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The Sheriff of Nottingham 이 Robin Hood 을 감옥에 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4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4년 동안 반복하여 계속 Robin Hood 을 투옥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당시 유행하던 생성의미론적 전통에서 수행도로 나타내면 (16')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owty, 1979, 251-252).

(16') 가. 결과상태수식 (internal/restitutive reading)



나. 반복적 의미 (external/repetitive reading)



이 문장의 동사 'jail'은 일반적으로 'for four years'와 같은 지속형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달성동사(achievement)인데 이와 함께 쓰였고, 이 시간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이 동사가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내부의 결과상태라는 뜻에서 Dowty (1979)에서 internal adverb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jail'이라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 구금기간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부에서는 이 시간부사를 이 동사의 논

향으로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단순한 경우를 따져 보기로 하자.

McCawley (1971), Morgan (1969), Dowty (1979) 등은 다음 문장 (17)도 이와 유사한 결과상태수식 (internal reading)이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이 문장은 (18)에서 풀어 쓰듯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von Stechow (1995)는 Dowty의 ‘external reading’과 ‘internal reading’에 대해 각각 ‘repetitive reading’(반복적 의미)과 ‘restitutive reading’(원상회복적 의미)으로 명명하였고 이것이 관련 연구에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17) John closed the door again.

(18) 가. external reading: ‘(John has performed the action of closing the door at least once before and) again he closed it.’

나. internal reading: ‘John has brought it about that the door is again in a closed state (, though he need not have closed it on any earlier occasion.)’

Yoon (1996)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입다’, ‘벗다’, ‘타다’ 유형의 동사를 결과상태동사로 분류하고, 아래 문장 (19)에서의 시간부사는 동사의 동작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아래 문장은 바지를 입은 동작이 과거에 일어난 경우에도 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있’을 단순 과거로 간주하더라도, 바지를 입은 동작의 결과 발생한 바지를 착용한 상태에 대한 시간적 서술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9) 가. 영희가 지금 빨간 바지를 입었다.

물론, 여기에서 ‘있’이 단순 과거가 아니고 완료상을 표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남기심, 1978). 이 문장에서 ‘있’이 표시하는 것이 단순과거인지 완료상인지는 결과상태 수식여부와는 별개이다. 문장 (19)을 소개한 요지는 이런 완료상적 접근에서도 결국 시간부사 ‘지금’이 수식하는 대상은 위의 (17)에서 결과상태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3.2 결과상태 수식의 실제성

위에서 언급한 문장들에서 실제로 결과상태 수식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Michael Bennett과 Moens and Steedman (1988)의 경우처럼 결과상태수식부사 (restitutive adverb)는 실제로는 결과상태에 대한 단순한 수식이라기보다 동작주의 의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절의 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상태수식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아래 문장 (20), (21) 등이 충분한 반례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이들의 반론은 무시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아래 명시된 기간은 호수와 기온, 혹은 이들을 움직이는 실체의 의도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20) The lake froze for two months.

(21) The temperature rose to about 75 degrees for a few hours, then it gradually fell to 62.

두 번째 반론은 Chierchia and McConnell-Ginet (199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위의 문장 (17)이 결과상태수식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화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close the door’와 ‘유사한’ 어휘 ‘clean the jacket’의 예를 들어 반박한다. 아래 문장 (22)에서 결과상태수식이 위의 경우와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언급된 일반적인 결과상태수식은 허구라는 것이다.

(22) John cleaned the jacket again.

위의 문장 (22)에 결과상태수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장에 나타나는 결과상태수식 자체가 허구라는 것은 (22)와 같은 문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주장이다. 세 가지 점에서 논박된다. 첫째, 문장 (17)이 비록 일부의 불일치가 있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화자가 결과상태수식을 갖는다는 직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again’ 이외의 위에서 언급한 시간부사의 경우 훨씬 더 명확하게 결과상태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lose the door’와 ‘clean the jacket’이 유사한 어휘라는 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ierchia and McConnell-Ginet가 이 둘을 비교하며, 이 둘이 대응되고 유사하다고 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휘분해 (lexical decomposition)에 기반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반박이 목적이었고, 이 두 어휘는 사역형 (causative)와 비대격형 (unaccusative)으로 동시에 같은 형태가 쓰이기 때문에 비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동사에는 많은 의미적 하위범주가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결과상태수식이 가능한 동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완벽하게 이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비교적 쉬워야 한다. 이 점에서 주어진 두 구절은 약간의 대조를 보인다. 문을 열고 닫으면 간단히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만, 재킷을 세탁한다고 해서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래 (23)의 문장들에서 언어적으로 반영된다.

(23) 가. The door was back to the closed state.

나. The door was back to the open state

다. #/??The jacket was back to the clean state.

라. #/??The jacket was back to the dirty state.

또한, ‘clean the jacket’은 ‘close the door’와 달리 완성동사 (accomplishment)와 행위동사 (activity)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24 나)의 시간부사는 (24 가)와 달리 결과보다는 과정을 수식한다.

(24) 가. They closed the door for an hour.

나. They cleaned the jacket for an hour.

간단한 상태전환가능성과 결과상태수식의 존재여부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은 아래 예문 (25)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다시 강조하지만, 결과상태수식은 모든 동사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사의 한 하위범주로 제한된다는 것이며, ‘close/open the door’는 이 범주의 원소이나 ‘clean the jacket’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 있어서 이러한 하위 범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Yoon (1996)의 Chapter 4를 참조하기 바란다.

(25) 가. John went to New York again.

나. John was back in New York.

따라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동사에 결과상태수식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성의 오류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생성어휘론

4.1 중점하위사건구조

Pustejovsky (1988; Pustejovsky (1995)는 Dowty (1979)가 언급한 결과상태수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의 창조적 적용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생성어휘론(Generative Lexicon)의 어휘의미론이 결과상태수식부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사건의 내부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인 사건은 과정(process)과 이에 결부되는 결과상태라는 두 개의 하위사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두 하위사건은 주로 상적 속성에 따라 전체선행(complete precedence) (<), 전체중첩(complete overlap) (○), 부분중첩(partial overlap) (<○)의 세 가지 중의 하나의 시간적 관계가 정해진다.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하위사건구조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위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순서에 덧붙여서 상대적 현저성에 근거해 *로 표시되는 중점의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어휘상을 대표하는 동사들에 대응하는 사건구조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26) 가. build (완성동사, accomplishment): $[e e_1^* < e_2]$

나. arrive (달성동사, achievement): $[e e_1 < e_2^*]$

다. walk (행위동사, activity): $[e e_1^* < \circ e_2]$

완성동사와 행위동사를 과정(process)인 좌측 하위사건이 중점이고, 달성동사의 경우는 결과상태인 우측 하위사건을 중점으로 설정한 이유로는 부사어 수식의 경향

에 상당부분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예들이 제시된다 (Pustejovsky, 1995, 73-75).

(27) 가. John ran home for an hour.

나. My terminal died for two days.

다. Mary left town for two weeks.

(28) 가. John built the house carelessly.

나. Mary quietly drew a picture.

위 (27)의 문장들은 모두 달성동사 유형인데, 해당 시간부사들은 이들의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반면, 완성동사 유형인 (28)의 문장에서 부사들은 전이(transition)를 유발하는 과정(process)을 수식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점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 부사들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수식을 받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중점사건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4.2 ‘다시’와 ‘또’의 설명

위의 3절에서 고찰한 이 두 부사어의 중요한 기능적 차이점은 ‘다시’는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한 반면,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시’는 과정(process)과 상태(state)에 중립적인 반면, ‘또’는 과정친화적(process-oriented) 부사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아래에 반복된 (15)의 문장들은 ‘또’가 결과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 상태에 대한 수식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15) 가. 너 또 아프니?

나. 그 사람 또 술집에 있어?

다. 그는 또 집에 있었다.

만약에 (15)의 문장들이 ‘또’의 일반성을 예시하는 경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적 상태와 결과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다시’와 ‘또’의 수식가능한 사건유형에 기반한 하위범주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4.3 사건구조의 수정보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Pustejovsky가 제안한 생성어휘론 하위사건의 중점구조 전반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달성동사 유형을 포함한 모든 하위사건 관계에서 좌측 하위사건인 과정(process)을 중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 하위분류에서

‘다시’와 ‘또’의 차이는 비중점 상태(non-head state)를 수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중점상태(headed state)에 대해서는 ‘다시’와 ‘또’ 둘 다 수식이 가능하나, ‘다시’의 경우에만 비중점 상태를 수식할 수 있다고 설정하는 방법이다. 결과상태가 아닌 (15)의 문장들은 단독 상태가 자체의 중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²

중점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고는 사실 ‘다시’와 ‘또’와 관련된 관찰만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점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다양한 중점구조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시도한 Pustejovsky (1988; Pustejovsky (1995), Pustejovsky and Bouillon (1995) 등의 사역형과 비대격형, 동사의 상적 속성에 따른 구분 등, 여러 가지 구문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득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³

사건구조의 수정보완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부사들을 적절히 설명하는 전제조건이냐는 질문과는 별개로, 현재의 Pustejovsky 방식의 사건구조는 다소간의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과정과 결과상태로 이루어진 상위사건의 구조에서 시간부사와 관련된 수식관계만 제외하면, 의미적으로 과정이 주 서술부이고, 결과상태는 주 서술부의 함의관계에 의해 파생된 이차적 서술부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도착하다’라는 술어에 대해서 ‘학교에 다다르는’ 과정과 도착이 이루어지는 정점(culmination)까지가 주 서술부이고, 이에 따라 ‘학교에 있게 되는’ 부분은 의미적 관계에 의해 도출된 결과일 뿐이라는 점이다.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 서술부인 과정이며, 결과상태는 과정의 결과로서 함의되는 정보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의관계에 있다고 해서 언어적으로 항상 하위사건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사가 위에서 제안한 중점구조에 입각해 수식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의 양태부사들은 항상 좌측 하위사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28) 가. John built the house carelessly.

나. Mary quietly drew a picture.

² 물론 쉬운 대안으로 Tenny (2000)의 방식처럼 ‘다시’와 ‘또’의 수식범위가 통사적으로 다르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다시’는 문장 전체와 부분 수식이 가능한 반면, ‘또’는 전체수식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도, 수식범위제한을 통한 설명의 한 가지 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또’가 좌측 하위사건을 수식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위사건 중에서 결과상태 수식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³ 그러므로 본 방안은 5절에서 제안하는 기저사건을 활용한 설명에 대한 비교대상으로서 역할로서만 이해되길 바라는 정도이다.

위의 (28)의 예문은 ‘carelessly’와 ‘quietly’가 완성동사의 중점인 과정을 수식하는 증거로서 제시되었으나, 사실은 이 부사들은 아래 (29)에서 예증하듯이 비중점으로 제안된 달성동사의 과정을 수식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은 이 달성동사의 중점인 결과상태는 수식이 불가능하다: (29나)는 터미널이 다운이 되어 조용해졌다는 의미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29다)의 문장에서 다운의 결과로 시끄럽게 되었다는 의미는 없다. (29다) 문장에서도 예를 들어 수다장이 Mary가 떠나 동네가 조용해졌다는 의미는 없다.

(29) 가. John ran home carelessly.

나. My terminal died quietly.

다. My terminal died loudly.

라. Mary left town quietly.

물론, 시간부사는 제안된 중점구조에 따르는 수식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는 생성어휘론의 프로그램에서 하위사건구조 유형분류 자체가 많은 부분이 시간구조와 관련된 속성에 기초한 결과로서 현상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시간부사 외의 부사, 적어도 ‘carelessly’, ‘quietly’와 같은 양태부사는 중점성 여부와는 상관없고 다른 방식에 의해 규칙성을 포착해야 한다. 예컨대 이 경우에는 양태부사는 모두 과정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하거나 위의 ‘다시’와 ‘또’의 대한 설명방식과 같이 과정을 중점으로 파악하고 결과상태는 비중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시간부사의 수식관계는 중점성과 관계없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⁴

두 번째 반론은 하위사건구조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생성어휘론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상태를 제외한 모든 사건유형은 과정과 결과상태라는 하위사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사어가 세 가지 단위, 즉 전체 상위사건, 과정, 혹은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30) Pustejovsky (1995, 74): When adjoined to predicates denoting transitions, prepositional and adverbial phrases not only can modify the entire event, but can also take scope over the individual subevents.

그러나, 부사어는 물론 대명사를 포함한 어느 언어단위도 상위사건을 직접 수식하거나, 지칭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흔히 상위사건과 하위사건 수식의 예로서 (31)과 같은 McConnell-Ginet (1982)의 문장이 언급된다.

⁴ 아래의 결과구문에서 ‘가지런히/반듯이’를 부사어로 구분한다면 한국어 양태부사는 영어의 경우와 다르게 결과상태도 수식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i) 철수는 책들을 책꽂이에 가지런히/반듯이 꽂았다.

(31) Lisa rudely departed.

이 중의적 문장은 ‘떠나는 과정(모습)이 무례한’ 해석과, ‘떠났다는 사실이 무례한’ 해석으로 나뉜다. 사건의미론 이전 시기의 설명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rudely’가 양태부사로서 과정을 수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사가 전체 문장/명제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Pustejovsky (1988)에서는 이를 하위사건구조를 활용하여 각각 좌측 하위사건과 전체(상위) 사건을 수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문장 (31)에 대한 이러한 하위사건구조를 이용한 설명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Pustejovsky의 하위사건구조에 따르면 결과상태의 지속기간이 모두 전체 사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떠나는 과정과 결과상태의 지속기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예상되지 않은 결과이다.

(32) The departure lasted two months.

마찬가지로, ‘집을 짓다’의 경우, 집을 짓는 3년의 과정과 이 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집이 존재하는 약 40년의 상태를 통합하여 시간적으로 나타내거나, 이 통합된 사건에 대해 대명사나 한정명사구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하위사건에 의해 하나의 상위사건을 이룬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이는 예상되지 않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하위사건에 의해 하나의 상위사건을 구성하고 있고, 부사어가 상위사건을 직접 수식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언어적 실체가 없는 이론적 구조물일 뿐이다. 이는 사건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서 과정과 결과상태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한 동사의 의미표상 내에서 서로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사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접한 자료와 관련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정과 결과상태에 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요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삼는 것은 과정과 결과상태를 하나로 묶어서 상위사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언어적으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사실 Pustejovsky가 실제로 제안한 구체적인 의미표상을 살펴보면 e_1 과 e_2 로 표시되는 과정과 결과상태를 표시하지만 상위사건인 e_0 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상태동사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물론 이러한 상위사건의 개념이 언어직관에 배치된다고 해서 사건의미론 모델 자체가 결함이 있다기 보다는 제안된 구조가 잉여적이라는 것이다.

5. 의미유형과 기저사건

앞 절에서 ‘다시’와 ‘또’의 의미기능적 차이에 대하여, 생성어휘론의 사건구조에 대한 수정 및 수식가능한 동사유형에 기반한 부사어 분류를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사어 분류의 방식이 부사 ‘또’가 결과상태 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 현상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 목적 이외에는 다른 논거가 전혀 없는 해결방식으로 이론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관찰된 세 가지 의미유형을 재고찰하고, ‘또’가 상태를 수식하는 경우를 세밀히 검토하여 이론적 타당성을 갖춘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5.1 세 가지 의미 유형

먼저, ‘다시’의 경우 단순 반복적, 수정적, 원상회복적 의미라는 세 가지 의미유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식하는 사건의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가. 행위동사(activity) → 단순 반복적 의미

나. 완성동사(accomplishment) → 수정적 의미 > 단순 반복적 의미

다. 상태동사(state) → 원상회복적 의미

완성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정적 의미의 경향을 보이며, 단순 반복과 수정적 의미의 명확한 구분은 위 (33)의 술어유형 이외에도 문장의 유형, 그리고 화용적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래 재 나열한 (4)–(9)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수정적 의미는 명령문이나 청유형에 주로 나타나며, (34)의 경우와 같이 수정의 목적이 가능해 보이는 사건에는 수정적 의미가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다.⁵

(4) 가. 연구계획서 다시 복사해 오세요.

(5) 가. 이 기안서 다시 써와.

(6) 가. 다시 닦아 임마!

(9) 가. 자, 다시 한잔 하자.

(34) 경찰이 우리를 다시 불렀다.

반면에 아래 (1), (35)와 같이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행위에 대한 수식으로서는 단순 반복적 의미의 경향이 강하다.

(1) 가. 내일 다시 만납시다.

(35) 철수 만나면 다시 전화할게.

⁵ 물론 (34)에서 경찰의 호출 사건 자체가 수정적이라기 보다는 호출의 목적이 재조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수정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자의 인식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술어 자체가 수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원상회복적 의미의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내용 추가로 고려할 만하다. 먼저, 부사 ‘다시’의 작용범위는 개별 동사 및 동사구 유형을 넘어 담화차원의 원상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36)에서 갑이 최종적으로 짜장면을 선택한 것은 ‘짜장면을 먹는 행위’가 원상회복이 아니라 ‘짜장면 선택행위’가 바로 직전의 선택행위를 수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선택상태로 복귀라는 점에서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36)의 ‘다시’가 선택행위에 대한 수정적 의미라면 (36’)처럼 갑의 마지막 발화로써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할 터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이전의 선택으로의 복귀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다시’가 가능하다.

(36) 갑: 짜장면.

을: 나는 짬뽕.

갑: 그럼 나도 짬뽕.

을: 그런데 여기 짬뽕 되게 매운데 ...

갑: 그래? 그럼 [다시] 짜장면 먹을래.

(36’) 갑: # 그래? 그럼 [다시] 우동 먹을래.

또한 원상회복적 의미는 아래 (37)과 같은 총칭문 (generic sentence)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술을 일정기간 끊었다가 다시 술마시는 습관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전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37) 철수는 다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보면, 위 (33)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 상태동사 유형에서는 ‘다시’가 주로 원상회복적 의미로 쓰인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자료로 보일 수 있으나 (35)와 (36)의 예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상태동사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담화차원에서 특정 상황은 상태로서 ‘다시’는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또한 총칭문은 일반적으로 단순현재형으로 발화시점을 포함한 일반적 상태에 관한 서술이며, 진행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상태동사 유형과 같은 통사, 의미적 속성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위의 예들도 상태동사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한 ‘다시’가 다른 양태부사와 시간부사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아래 (38)에서 양태수식이 없는 (38가)는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하나 ‘걸어’, ‘뛰어’, ‘기어’와 같은 양태수식을 부가한 경우에는 가는 행위의 반복을 의미할 뿐 결과상태 수식은 불가능하다.

(38) 가. 철수는 인천에 다시 갔다. [결과상태 수식 O]

나. 철수는 인천에 다시 걸어 갔다. [결과상태 수식 X]

다. 철수는 인천에 다시 뛰어 갔다. [결과상태 수식 X]

라. 곰은 다시 동굴에 기어 갔다. [결과상태 수식 X]

위에 해당하는 (39)의 영어 구문의 경우 ‘again’은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9) 가. John flew to New York again.

나. The bear ran into the cave again.

다. The giant walked into the cave again.

위를 비교하면 영어 구문의 경우 양태수식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사적으로 수식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다시’의 수식범위에 양태부사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다시’의 범위에는 필연적으로 양태부사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결과상태에 직접 연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영어의 의미구조에서는 사건자체가 flying, running, walking 등으로 이에 대한 결과상태와 부사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구조의 차이를 간략히 나타낸다면 (40)과 같다.

(40) 가. 철수는 인천에 다시 걸어 갔다.

tasi [by-walking[go(e) & to(c, i) & in(c, i)]]

나. John flew to New York again.

again [flying(e) & to(j, ny) & in(j, ny)]

‘인천에 걸어가는’ 사건 e의 결과상태로 in(c, i), ‘flew to New York’의 결과상태로 in(j, ny)가 똑 같이 설정되어 있으나, 한국어 예의 경우 다른 부사어 ‘걸어서’(by-walking)의 수식범위 안에 포함되어 영어와 달리 ‘다시’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식어가 분리되어 있는 (41)의 경우 영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상태수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찰된다.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은 (41가)에 대한 분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1) 가. John went to New York by flying again.

나. The bear went quickly into the cave again.

다. The giant went slowly into the cave again.

즉, 부사어 'by flying', 'quickly' 등이 부사 'again'의 작용범위 안에 위치해 결과상태 수식을 방해한다.⁶

부사 '또'가 단순 반복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부사로서 '도로'를 제시할 수 있다. 아래 (42)와 같이 부사 '도로'는 원상회복적 의미만을 가진다.

(42) 가. 꼬마는 자기가 준 선물을 도로 달라고 졸랐다.

나. 외판원은 팔리지 않은 책을 도로 가져 갔다.

다. 맛이 없으니 도로 목이라고 불러라. [도루목의 기원]

이상과 같이 '도로'를 포함하여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의미를 가진 부사는 이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으나,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복'의 세 가지 의미를 역할 분담하고 있다. 이 유형을 영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의 경우에는 기능분담이 단순반복과 원상회복에 관해 특정어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단순반복 의미만을 제공하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다음 (43)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43) 가. 한국어 반복의 의미유형과 부사

부사	단순 반복적 의미	수정적 의미	원상회복적 의미
'다시'			
'또'			
'도로'			

나. 영어 반복의 의미유형과 부사

부사	단순 반복적 의미	수정적 의미	원상회복적 의미
'again'			
∅			
'back'			

5.2 '또'의 재고찰과 기저사건 (default event)

부사 '또'에 대한 재고찰을 위해서 이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또'를 '다시'와 구분하였던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또'는 '다시'와 달리 수정적 의미나 원상회복적 의미를 유발하는 수식관계에 있지 않고, 항상 단순 반복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이었고, 둘째로 '또'가 일반적 상태동사는 수식이 가능하나 결과상태는 수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반적 상태와

⁶ 물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부사어 분리수식의 제한성을 들 수도 있다. 과정과 결과상태에 대해 각각 분리하여 수식하는 것은 초점의 흐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과상태를 구분해서 설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와 ‘다시’의 구분을 위해 매우 어색한 설명을 동원해야만 하였다.

부사 ‘또’가 결과상태는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 상태는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핵심적인 자료는 아래에 재 나열한 (15)의 예문들이다.

(15) 가. 너 또 아프니?

나. 그 사람 또 술집에 있어?

다. 그는 또 집에 있었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15)의 예문들은 ‘또’의 사용에 있어서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이 드러난다. 아래와 같이 여타의 상태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또’의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군 입대 등으로 휴학을 한 후 복학 절차를 마친 철수라는 학생에게 (44 가)는 가능하지만 (44 나)는 매우 어색한 문장이다.

(44) 가. 철수는 다시 학생이다.

나. #철수는 또 학생이다.

(45) 가. 철수는 다시 술을 마신다.

나. #철수는 또 술을 마신다. [총칭문의 의미가 의도된 경우]

(46) 가. 송탄은 다시 평택에 속한다.

나. #송탄은 또 평택에 속한다.

(47) 가. 철수는 다시 영화를 사랑한다.

나. #철수는 또 영화를 사랑한다.

위의 나타난 ‘또’가 상태수식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비교하면 가능한 경우는 결국 예외적으로 순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또’의 상태수식이 가능한 술어와 불가능한 술어의 구분은 Carlson (1977)에서 시작된 무대성술어 (stage-level predicate)와 개체성술어 (individual-level predicate)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ustejovsky (1995)는 명사를 자질구조의 차이에 따라 생성자질 (agentive quale)이 관련된 인공물 (artifact)과 관련되지 않은 자연물 (natural kind)로 구분하듯이, ‘be angry’와 같은 무대성 상태술어와 ‘be tall’과 같은 개체성 상태술어의 구분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Pustejovsky (1991)의 제안과는 달리 무대성 상태동사와 개체성 상태동사의 차이는 사건구조의 차이에 있다기보다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요인에 대한

참조가능성에 있어서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즉, 무대성 상태동사는 자질구조에 생성 자질 (agentive quale) 을 포함하는, 명사의 경우와 비유하자면 인공적인 상태 (artificial state) 이다.

이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바로 기저사건 (default event) 의 개념이다. 기저사건은 무대성 상태동사가 표시하는 특정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be angry' 라는 상태동사의 기저사건은 '화난 상태' 로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는 과정 'open the door' 와 이에 대한 결과상태 'the door is open' 에 상대되는 역관계 (mirror image) 이다. Pustejovsky 가 제안한 기저사건 관계의 예를 축약된 형태로 들자면 'angry'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참조 227쪽).

$$(48) \left[\begin{array}{l} \text{angry} \\ \\ \text{EVENTSTR} = \left[\begin{array}{l} E1 = e1 : \text{state} \\ \text{default} - E1 = e2 : \text{process} \\ \text{RESTR} = e2 < e1 \\ \text{HEAD} = e1 \end{array} \right] \\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FORMAL} = \text{angry}(e1, \dots) \\ \text{AGENTIVE} = \text{exp} - \text{act}(e2, \dots)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여기에서 $e1$ 이라는 화난 'angry' 상태에 대한 시간적으로 앞선 $e2$ 라는 과정이 기저사건 (default event) 로서 사건구조 (EVENTSTR) 와 자질구조 (Qualia) 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생략하였으나) 논항구조 (ARGSTR) 에 $e1$ 과 $e2$ 가 관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방식이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첫째 부사 '또' 는 '다시' 와 달리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없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둘째, 한국어 상태동사 중에서 부사 '또' 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동사와 그렇지 않은 상태동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분은 무대성 술어와 개체성 술어의 구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Pustejovsky 가 무대성 상태동사의 서술에 포함시킬 것으로 제안한 기저사건 (default event) 라는 것은 무대성 (임시적) 상태를 유발하는 과정 (process) 이며, 이는 결과상태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부사 '또' 의 현상을 설명하자면 의외로 매우 간단한 방법이 가능해진다. 바로, 부사 '또' 는 상태동사 (state) 는 수식이 불가능하고, 항상 과정 (process) 만을 수식하여 단순 반복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어휘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 '또' 가 결과상태를 수식하지 못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결과상태는 '상태' 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상태동사 수식과도 어색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유일한 문제가 (15) 의 예문인데, 이들 예문은 무대성 상태동사를 포함한 문장이다. 따라서 Pustejovsky 가 제안한 기저사건 (default event) 를 도입한 무대성 상태동사의 구조를 활용하여 설명을 제공하면 된다. 다시 말해, 이런 예문에서 '또' 가 상태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사건을 수식한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결국 현상적으로 상태를 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과정(process)인 기저사건을 수식하는 것이며, 이는 논리적으로는 해당 문장에서 상태를 수식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해결방식은 ‘다시’와 ‘또’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매우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 차이의 설명을 위해 굳이 Pustejovsky의 중점구조의 수정보완 논의자체도 불필요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다시’와 ‘또’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이들의 의미적 차이점은 수정적 의미, 원상회복적인 의미와 단순 반복적 의미로 구분되며, ‘다시’는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하나 ‘또’는 불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설명을 모색하였다. 먼저, 생성어휘론에서 제안한 하위사건구조를 수정, 보완하고, 중점구조와 관련한 부사어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또’의 재고찰의 결과 이 설명방식 보다는 기저사건의 개념을 활용한 접근방식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한 설명임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관찰된 기능적 차이가 이들 부사의 의미적 차이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 남기심. 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Carlson, Gregory. 1977. A Unified Analysis of the English Bare Plur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413-458.
- Chierchia, Gennaro and Sally McConnell-Ginet. 199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MIT Press.
- Dowty, Davi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Kluwer Publishers.
- McCawley, James. 1971. Pre-Lexical Syntax. In O'Brien (ed.), *Report of the 22nd Roundtable Meeting on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cConnell-Ginet, Sally. 1982. Adverbs and Logical Form. *Language* 58, 144-184.
- Moens, Marc and Mark Steedman. 1988.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2, 15-28.
- Morgan, Jerry. 1969. On Arguing About Semantics. *Papers in Linguistics* 1, 49-70.
- Pustejovsky, James. 1988. The Geometry of Events. In Carol Tenny (ed.), *Studies in Generative Approaches to Aspect: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24. MIT Press, pp. 19-39.
-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1-3, 47-81.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 Pustejovsky, James and Pierrette Bouillon. 1995. Aspectual Coercion and Logical Polysamy. *Journal of Semantics* 12, 133-162.

- Tenny, Carol. 2000. Core Events and Adverbial Modification. In C. Tenny and J.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 von Stechow, Armin. 1995. Lexical Decomposition in Syntax. In U. Egli, P. Pause, C. Schwarze, A. von Stechow, and G. Wienold (eds.), *Lexical Knowledge in the Organization of Grammar*. John Benjamins, Amsterdam.
- Yoon, Jae-Hak. 1996. *Temporal Adverbials and Aktionsarten in Korean*. Ph.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접수 일자: 2007년 9월 18일

게재 결정: 2007년 11월 17일